

농촌진흥청, 농업인 온열질환 예방 본격 추진

농업인 단체 선도농업인 '온열질환 예방 요원'으로 선발·교육

올여름 폭염에 대비해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이 '농업인 온열질환 예방 요원'을 선제적으로 양성하고, 오는 6월부터 현장 밀착형 예방 활동을 본격 추진한다. 농촌진흥청은 5월 18일 안성시 농업기술센터에서 발대식을 열고 여름철 농업인 건강과 안전을 위한 대응체계 가동을 알렸다.

이날 행사에는 전국 주요 시군 대표로 선발된 온열질환 예방 요원 90여 명이 참석해 지역별 예방 활동을 성실히 수행하고 농업인 보호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예방 요원들은 6월부터 폭염이 절정에 이르는 8월까지 농업 현장을 직접 찾아 폭염 위험도를 점검하고, 쿨도시·아이스 넥밴드·

쿨링 타올·쿨 스프레이 등 예방 용품을 배부할 계획이다. 또한 여름철 안전한 농작업을 위한 행동 요령과 온열질환 예방 수칙을 집중적으로 전파한다. 이날 발대식에 참석한 이승돈 청장은 예방 요원들을 격려하며 "현장 밀착형 활동을 통해 고온에 취약한 고령 농업인을 보호하

고, 폭염의 위험성을 현장에 널리 알리는 데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농촌진흥청은 기후변화로 폭염이 일상화되고 온열질환자가 증가하는 상황에 대응해 농업인 인명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특히 올해는 신규 사업으로 예방 요원을 선발·운영해 현장 중심의 안전 활동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이번에 선발된 예방 요원은 농업인 단체 소속 선도농업인으로, 전국 91개 시군에서 8명 이상씩 총 967명(5월 7일 기준)에 달한다. 이들은 온열질환 예방 수칙과 안전 행동 요령, 응급처치 실습 등 실무 중심 교육을 이수했다. 한편 농촌진흥청은 2024년 7월 대한적십자사, 동아오츠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농업인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해 운영 중이다. 이승돈 청장은 "농업 현장에서 온열질환 예방 수칙과 폭염 단계별 대응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도록 지도·점검을 강화하겠다"며 "예방 요원을 통한 현장 밀착형 활동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농촌진흥청 제공

김대경 기자
press@nonguetimes.com

KREI, 임산물 생산 스마트화 4대 전략 제시

정책 연계·인프라 구축 등 14개 과제 도출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은 '노지 스마트 농업 기술을 활용한 임산물 생산업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 연구를 통해 산지 환경에 적합한 스마트 기술 도입 방향과 정책 과제를 제시했다.

연구에 따르면 기후위기와 고령화, 노동력 감소로 임산물 생산업의 지속가능성이 점차 약화되고 있다. 특히 경사지 중심의 산지 생산 구조는 접근성과 통신·전력 인프라 부족, 소규모·다필지 경영 등의 한계로 스마트 기술 도입에 제약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연구는 토양·기상·병해충 센서, 드론, 영상 모니터링 등 노지 스마트농업 기술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했으며, 단순 도입이 아닌 산지 여건에

맞춘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문헌조사와 통계·공간 분석, 임업인 설문조사, 현장 간담회, 일본·핀란드·에스토니아 사례 분석 등을 통해 데이터 활용, 지역 단위 운영, 민간 서비스 연계, 공공 전달체

계 구축의 필요성을 도출했다. 분석 결과, 임산물 생산업의 스마트 전환은 농업정책과 산림정책 간 연계 부족으로 충분히 진전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장 역시 영세·다필지 경영과 경사지·원거리 임지 등의 여건으로 데이터 기반 자동화 체계 구축이 어려워 스마트 기술 활용 수준이 낮은 상태에 머물러 있다.

연구는 스마트임업의 핵심을 단순 장비 보급이 아닌 '작동체계' 구축으로 규정했다. 즉, 현장을 관측하는 '눈', 데이터를 해석하는 '뇌', 작업과 경영 개선으로 이어지는 '손'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구조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KREI는 정책 체계 연계, 산지형 기술 인프라 구축, 사회적 확산 경로 복원, 전달체계 혁신 등 4대 전략과 14개 정책 과제를 제시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제공

농어촌공사,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 확대

매입 범위 확대해 농지 소유자 참여 기회 넓혀

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중)는 농지 소유자가 안정적으로 농지를 매각할 수 있도록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은 고령 농업인이나 상속 등으로 농지를 보유한 비농업인의 농지를 공사가 매입한 뒤 청년농 등 실수요자에게 임대하는 제도로, 농지시장 안정과 농업 구조 개선을 동시에 도모하고 있다.

'역대 최대 규모'...매입 예산 1조 6천억 원으로 확대

한국농어촌공사는 올해 해당 사업 예산을 1조 6,138억 원으로 확대했다. 이는 전년 대비 약 68% 증가한 규모로, 역대 최대 수준이다.

공사는 이번 예산 확대를 통해 기존에 누락된 매입 대기 물량을 해소하는 한편, 신규 신청 물량에 대해서도 신속한 매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농지 전수조사와 특별정비기간 시행으로 농지 매

도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접수 물량 처리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매입 범위 확대...참여 기회 확대

공사는 원활한 농지 매입을 위해 제도 개선도 병행하고 있다. 기존에는 청년농 수요가 높은 밭과 과수원의 경우 농업진흥지역 밖에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농지만 매입이 가능했으나, 지난 4월 지침 개정을 통해 농업생산 기반정비사업으로 배수시설이나 농로 등 기본 영농 기반이 갖춰진 경우에는 경지정리나 밭기반정비가 완료되지 않은 농지도 매

입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했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에 한해 읍·면 계획관리지역 농지도 예외적으로 매입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지역 여건을 반영한 기준도 적용하고 있다.

공사는 앞으로도 제도 개선을 지속해 매입 가능한 우량농지를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

김윤 한국농어촌공사 농지는 행정처는 "매입한 농지를 청년농 등에게 공급해 농지 이용 효율을 높이고 농업 구조 개선에도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농어촌공사본사전경

농축환경신문
1998년 10월 26일 창간 등록번호 서울다 06693
(04071) 서울시 마포구 독막로 10, 성지빌딩 601호
기사제보 전화: 02-582-4016 팩스: 02-582-4002
광고신청 전화: 02-582-4016
이메일: press@nonguetimes.com
홈페이지: www.nonguetimes.com
자매지: 농업경제, 발행간: 농업경제
발행간: 농업경제 | 인쇄인: 이정자
구독신청: 배달안내 02-582-4016
구독료: 월 8,000원 / 년 80,000원
농축환경신문 301-0328-9561-51 (농축환경신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주간신문윤리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aT, 공공기관 감사 평가 'A등급'

공정·투명 조직문화 인정 자체감사 우수기관 선정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홍문표)는 감사원이 실시한 '2026년 공공기관 자체감사활동 심사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A등급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사평가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의 내부감사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국가 감사체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매년 실시되는 제도다.

평가 항목은 ▲기관 차원의 자체감사기구 지원 의지 ▲자체감사기구의 구성 및 인력 수준 ▲자체감사활동 성과 등 3개 분야로 구성되며, 종합 결과에 따라 A~D등

급이 부여된다. aT 감사실은 그동안 사전 예방 중심의 감사활동과 철저한 사후관리, 엄정한 처분 기준을 통해 조직 전반의 내부통제 체계를 강화해 왔다.

또한 감사기구의 독립성과 전문성 제고, 적극행정 지원, 사전컨설팅 확대 등을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조직문화 조성에 기여했다.

전종화 aT 상임감사는 "이번 A등급 달성은 감사 전문성 강화와 내부통제 체계를 충실히 운영해 온 결과"라며 "앞으로도 자체감사기구의 독립성과 역량을 지속적으로 높여 공정하고 투명한 조직문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김대경 기자
press@nonguetimes.com

풍수해 대비 농업용저수지 '안전점검' 실시

김종구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5월 20일 경상남도 진주시 소재 한치저수지를 방문해 저수지 관리 상태를 점검하고, 현장 관리 관계자에게 철저한 안전관리를 당부했다.

이번 현장 점검은 4월 20일부터 6월 19일까지 전국적으로 실시 중인 '2026 집중안전점검'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2026 집중안전점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민간 전문가가 함께 참여해 국민 생활과 밀접한 안전 취약시설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하는 법정부 안전관리 활동이다. 점검 대상에는 농업용 저수지, 농어촌민박, 관광농원 등 농촌관광시설과 농수산물 도매시장 등이 포함된다.



▲김종구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5월 20일 경상남도 진주시 소재 한치저수지를 방문해 저수지 관리상태를 점검했다.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



거래정보, 휴업일, 행사·축제 등
가락·강서시장 관련 각종 소식들을
놓치고 싶지 않다면?
농수산물 출하 가능 일정을
사전에 빠짐없이 확인하고 싶다면?

**카카오톡으로
가락시장 소식을
받아보세요!**

카카오톡에서 **서울시농수산물공사** 채널을 추가해보세요!



QR코드를
스캔해주세요